

2019-1학기 iClass 수강 후기

학생 정보	학과	수학교육과	학번	
	성명	양우영	전화번호	
과목 정보	수강시기	2019-1학기	수강과목	노사관계론
	담당교수	옥지호 교수님	주요내용	노사정 간의 이해관계와 문제, 해결방안

제목	대학생활 첫 i-Class? 눈 떠지는 Eye-Class! 스스로 참여하는 I-Class!!
----	---

– 어떻게 iClass 수업을 접하게 되었는지??

사실 처음부터 iClass 수업을 듣기위해 이번 노사관계론 수업을 수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탓에 대학생활 동안 1학년 때 들었던 통합교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강의 수업은 항상 수강신청에서 배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에도 iClass 강의를 수강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iClass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것은 옥지호 교수님과의 인연이었습니다. 2017년 2학기, 옥지호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경영의 이해” 수업은 제가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시작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들었던 첫 전공필수 교과목 역시 옥지호 교수님의 “인적자원관리”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옥지호 교수님께서 매 학기마다 수업에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기 초, 학생들에게 서로 자기소개를 시키는 방법부터 팀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방법, 평가방법까지 매학기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노사관계론을 수강을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iClass 수업이라 영상 강의도 챙겨서 봐야하고 귀찮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연 옥지호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실까?’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대감이 저를 이번 학기 iClass 노사관계론 수업으로 이끌었습니다.

– 스스로 참여하는 노사관계론 iClass

노사관계론의 iClass 수업은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습할 단원에 대한 교수님의 대략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이 선행됩니다. 교수님은 노사관계론 전체의 맥락에서 이 단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장에서의 핵심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기 전 다음 시간에 토의할 주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각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기존 온라인 강의의 경우 내용이 길고 지루해서 그냥 틀어두기만 하고 형식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큰 학습 효과가 없었던 반면 노사관계론 iClass 영상에서는 토의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고 영상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영상 이후에 제시되는 퀴즈를 풀거나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하려면 영상을 다시 되돌아보며 공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활동의 성격에 따라 영상이 단순히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토

의 활동의 룰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나, 토의 활동의 팁을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토의 활동입니다. 토의 활동의 진행 방법은 워크시트 작성, 토론, 협상게임, 직쏘모델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다른 학생들과 조 편성이 되며 다른 주제, 다른 방법의 토의를 합니다. 토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영상을 보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같은 조의 다른 학생에 의해 감점이 진행되는 구조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평가에 있어 iClass와 토의 점수가 높아 학점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토의 점수를 위해 iClass 영상을 더 심도있게 시청한다든지, 교수님의 수업시간에 더 잘 참여하게 되는 구조로 수기 제목에 적혀있는 것처럼 눈 떠지고, 스스로 참여하는 iClass 수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수업에서 tvN에서 방영했던 더지니어스와 같은 게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단원의 내용인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들에 대해 설명하는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협상 게임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iClass 영상에서 게임의 룰과 게임에서의 각 집단이 달성해야하는 목적, 가진 권한(스킬), 게임 승리 조건, 필패 조건 등을 설명하여 두 번째 수업시간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을 사용자, 주주, 노동조합^{1,2} 정부로 나누어 조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각 집단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소셜 네트워크 게임과 비슷한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점수도 점수지만 활동 참여에 흥미를 느껴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iClass 수업의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

iClass 수업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iClass 수업의 성과는 이를 운용하는 교수님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iClass 수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꾸로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이 영상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부터 영상을 본 후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 모두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수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도를 하기 위해 수업설계에 있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없이 단지 iClass를 하기 위해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그 수업은 그저 이전의 실패했던 온라인 수업과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 설계에 노력을 기울여 잘 운용한다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iClass 수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iClass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지우고 학생들이 iClass 수업의 메리트를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먼저 iClass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귀찮다’ 일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에 참여하

기 위해 미리 온라인 강의까지 듣고 와야 한다는 점, 상당히 귀찮습니다. 학습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일주일에 “3시간 오프라인 수업 + 온라인 강의 시간”,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이 짧은 것을 선호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의 시간을 단축하거나, 온라인 강의의 내용이 기존 온라인 강의처럼 수업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면 학생들은 학습시간에 있어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축한 시간 안에서도 학습의 질은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평가방법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습니다. iClass 수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업의 컨셉이 수업에 대한 참여, 몰입이기 때문에 평가 배점을 시험보다 출석과 iClass에 대한 참여 정도의 비중을 높이고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팀플 과제, 레포트, 중간시험 등의 비중을 줄인다면 iClass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iClass 수업의 효과

노사관계론 iClass 수업의 핵심이 자발적인 참여와 토의 활동에 있다보니 학습내용의 습득이 강의식 수업의 암기식이나 주입식 방법에 비해 월등히 좋았습니다. 토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암기 노력 없이도 그 내용이 내면화되고, 워크시트를 작성하면서 노트 작성과도 비슷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매번 다른 조원들과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조원들과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생활 9학기동안 처음이자 마지막 iClass 수업을 듣게 되었고 다시는 iClass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수업 들었고 후회 없이 공부했던 한 학기였습니다. 마지막 학기 즐겁게 수업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옥지호 교수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